

책으로 만나는대행 스님 가르침

쉽고 명확한 불법 온세상 퍼지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삶의 진리를 꿰뚫는 스님의 간명한 말씀은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쉽게 이끌어주고 있다.

스님은 삶의 진리와 불법을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예불 의식문을 한글로 쉽게 풀었으며,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많은 불서를 보급했다.

특히 30여 년 전부터 세계인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전하라고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1999년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출간하고 있다. 스님은 일찍이 마음공부에 목말라 하는 전 세계인들을 간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스님의 제자들이 하나 물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대행 스님은 30여 년 동안 불서 포교에 전념했다. 사진은 그동안 스님이 펴낸 불서 표지들.

출판부 설립해 불서포교 본격화

대행 스님은 일반 불자들을 위한 범어집과 스님들을 위한 수행지침서 등 포교관련 서적을 기획·출판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출판부'를 1996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대행 스님이 30여 년간 설립한 육성 법문을 묶어낸 전집 (허공을 걷는 길)과 스님의 전기와 범어, 선시 등을 집대성한 (한마음요전),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를 담은 (신행요전) 등 20여 권의 불서를 출간했다.

(한마음요전)에서는 스님의 구도기와 스님이 1970~1991년 20여 년간 법문한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았다. 이 책은 스님이 강조한 >마음의 원리 >수행의 방법 >생활 속에서의 실천 등에 관한 불법 공부의 핵심을 담았다.

(허공을 걷는 길)은 지구 생태계의 문제에서부터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 자유인의 길에 이르게 하는 스님의 가르침을 정치·국내·국외·법형제회 등 범법별로 모은 것이다.

대행 스님은 (살은 고가 아니다)를 통해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으니 더 이상 삶이 고통이 아님을 전하고 있다. 초심자들뿐 아니라 불법의 진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행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그냥 무조건이야)는 제자스님들과 나누는 생생한 법담을 담은 책이다. 어떤 생명도 부처 아님이 없으며 어떤 시간도 깨달음의 시간이 아닐 수 없음을 가르치는 스님의 법문 가운데 수시로 읽고 외우며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 들을 골라 묶은 것이다.

한글로 쉽게 풀어 경전의 바른 뜻 전해

대행 스님은 불교계에서 예불 의식문이나 경전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경전이 지닌 의미를 바로 알리기 위해 한글 뜻풀이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을 펴냈다.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를 통해 자성을 믿고 생활 속에서 깨칠 수 있음을 알려 나와 남을 모두 이끄는 뜻을 알리고자 했다. 뜻으로 풀 한글 경전은 경구를 외우는

것만으로 수행을 삼던 불자들에게 예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불법의 진리 알려

"신도들만 읽는 책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대행 스님은 한마음선원 설립 초부터 책을 통해 해외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서구지역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공부를 갈망해온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1999년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립하고 스님의 법문을 외국어로 번역·출판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불법의 진리를 전파했다.

이곳에서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영어책으로 먼저 만들어 출간하고 그 뒤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책들은 <건널 강이 어디 있소라>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내 마음은 금부처) (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20여 개의 서적이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 번역불서를 2005년부터 세계 75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명망있는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해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대행 스님의 법문으로만 구성된 책을 들고 부스를 개설해 매년 참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에 한국화를 그리려는 임효 화백의 삽화를 넣어 사회집 형식으로 출간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박람회에 출판매 현지 출판사들과 언론 및 방문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불

교의 해외포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천수경)을 통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은 시인은 추천사에서 "대행노사의 회통으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대비심다라니경이 아기의 젖인 듯 어미의 눈물이듯 일천의 눈 일천의 손 잔치 열리더이다"며 책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책은 2009년 13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독일의 디터리히스(Diederichs)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출판사 총편집장 눈에 띄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출판사는 삽화가 들어가는 그림책은 출판한 전례가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책은 2010년 9월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시상식중 하나다.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들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최근 대행 스님의 영어법문집을 에스도니아어로 번역·발간하는가 하면 중동국가인 리비아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 그 예다.

청고 스님은 "리비아 등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문화권의 출판사와 가톨릭 정교국가 출판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고 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촌이 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변화되기를 발원하는 대행 스님의 노력과 가르침의 씨앗이 책을 통해 전세계에 발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행 스님 책 해외 서평

간단하지만 심오한 불교경지 드러내

다음은 대행 스님의 저서에 대한 편집장 및 저명인사들의 서평이다. 소개된 내용은 흔히 출판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aid-review(돈을 지불하고 서평을 요청 한 것)가 아니다.

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줍니다."
- 데이비드 맥칸, 美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원, 만해상 수상자

"대행 스님이 풀어 놓은 경전들은 군더더기 없고 진리의 핵을 단번에 꿰뚫어 놓으셨으니 눈 멀고 귀 먼 자라 하더라도 접하기만 하면 진리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서평 中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대행 스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야말로 현대불교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사이자 일반인이 다가가기 쉬운 큰 스승님들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로버트 버스웰, UCLA 불교학연구소장

"대행 선사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지금 당장 접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혜의 세계가 언제나 여기에 있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으니,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라 손짓합니다. 선사는 (No River to Cross)에서 철저히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매우 참신한 마음 수행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가르침은 놀랍도록 심오합니다."
- 위즈덤 출판사 편집장 (No River to Cross) 서평 中

"스즈키 슌류의 <Zen Mind, Beginner's Mind>처럼 (No River to Cross)는 참으로 오롯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이하면서도 정교를 찌르는 말로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대행 선사의 역량으로 이 책은 <Zen Mind, Beginner's Mind>와 같은 장기 스테디셀러로서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프란시스코 조, 美 조지타운대 교수

"(No River to Cross)는 불교수행에 대한 복잡한 설명들과 개념들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마음을 밝혀주는 우리들 생활에서 선별된 일례들이 위의 개념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

"한국 비구니 스님이 전하는 참신한 가르침의 맛을 처음으로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분명 더 많은 가르침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심정을 참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삼발라 썬 편집장 (삼발라 썬은 정신, 명상수행과 관련한 지명도 높은 잡지다.)

대행 스님의 저술서들

구분	제목
국내서적	내 마음은 금부처 (상·하) 간널강이 어디 있소라 그냥 무조건이야 살은 고가 아니다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꽃을 피우는 나무 허공을 걷는길-국내지원법회1·2·3 허공을 걷는길-법형제법회1·2 허공을 걷는길-정기법회1·2·3·4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 뜻으로 풀 우리말 천수경 신행요전 한마음요전
	No River to Cross(간널강이 어디있소라)영어/독일어/스페인어/중국어/러시아어 The Furance Within Yourself(일체를 공공로에 넣어라) Mind, Treasure House of Happiness(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복의 창고) Let's Go and Observe(말겨놓고 지켜봐라) Walking Without a Trace(흔이 없는 도리) To Discover Your True Self, I Must Die(죽어야 나를 보리라) Wo immer du bist, ist Buddha(내가 알기에 전체가 안다) 독일어 El Camino Interior(내면의 길) 스페인어 Ensenanzas de la Maestra Daehaeng(대행 스님의 가르침) 스페인어 Vida de la Maestra Seon Daehaeng(대행 스님의 행장기)스페인어 My Heart is a Golden Buddha(내마음은 금부처) 영어 It's Hard to Say(대행스님께서 법회중 들려주신 이야기들) 영어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 영어/독어 Si te lo propones no hay imposibles (일체는 마음먹기 달랐다)스페인어 Una semilla inherente alimenta el universo (은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스페인어

마음과 과학은 둘이 아니다

전문 분야 학자들이 마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한마음과학원 설립해 마음공부 다각적 조명

"마음의 과학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희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까지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 대행 스님 법문 中

대행 스님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그 근본이 같음을 일찍이 깨닫고, 그 원리를 연구하고 증명해내기 위해 1996년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했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학자들이 인문·사회·자연·의학·공학·교육 6개 분과와 수행그룹 '선수행실천연구회'를 중심으로 마음공부를 대의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대행 스님이 강조한 마음공부를 통해 해결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불교식 명상을 통한 질병 회복경험' 'K대학생의 시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관(觀)의 효과'를 주제로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스트레스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마음공부포럼 >한나문인성교육 >한마음아버지마당 등을 마련해 일반인·청소년·교사·중장년층 아버지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주인공' '관법' 학술 논문 주제로 연구

대행 스님은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때그때 대중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추어 독자적인 언어로 법문을 펼쳤다. 이러한 스님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한 불교적 가르침과 사상은 많은 불교학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됐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 수는 10여 가지가 된다.

독일 종교학자 롤랑 피취(Roland Pietsch) 교수는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일반인·청소년·교사·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2011년 한마음 아버지 마당에 참가한 중장년층 아버지들이 마음공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대행 선사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사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독일의 저명한 종교학자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중세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적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을 비교한 글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염준근 씨는 '불교의 일심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주제로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염 씨는 논문을 통해 대행 스님의 '주인공' 개념과

관법수행을 대장경과 선어록의 가르침과 대조하고, 스님의 가르침과 전통불교의 가르침이 그 근본에 있어서 같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혜선 스님은 '한마음사상과 선수행체계 연구'를 주제로 동국대 석학박사학위를 썼다. 논문에서 스님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아함부경전)과 중국 천태종 화엄종, 한국 선종 등에서 가르치는 일심사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전통불교의 가르침과 근본이 동일함을 주장했다.

미국인 마르시 미들 브룩은 '한마음선원과 대행 스님의 주인공 개념연구'를 주제로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해 '주인공' 개념을 전통불교의 가르침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고미라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은 '탈이분법적 여성주의 인식론을 향하여'를 주제로 중관사상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관련지어 여성학을 논했으며 '낙태문제를 불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주제논문으로 계간지 (문·사·철)에 발표해 스님의 사상을 통해 낙태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영담, 장엄등, 도량탑 등도 연구주제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대행 스님의 사상을 담고 있는 한마음선원 법당, 단청, 영담, 도량탑, 장엄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현대 도심포교의 성장과정에 관한연구'에서 한마음선원의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뤘으며, 송인정 씨는 '공간구성 변화에 따른 단청문양의 재구성'의 논문에서 한마음선원 법당의 단청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박기태 씨는 '연등축제 기록과 방안'에서 한마음선원 장엄등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김기상 씨는 '한마음선원 도량탑의 전통문양과 상징성'을 주제로, 정태경 씨는 '우리나라 장묘형식의 문체적 접근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한마음선원의 도량탑 및 영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어나 기자